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LAB METAL
어려운 AI, 쉽고 재미있게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1 호 |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 오늘의 AI

크리에이티브

Krea, 리얼리즘 영상 프롬프트 5종 무료 공개

Krea가 배포한 프롬프트팩을 메탈랩이 직접 받아, 다섯 편 전문을 한국어로 옮겼다



크리에이티브 · Krea, 리얼리즘 영상 프롬프트 5종 무료 공개

생성형 AI 플랫폼 Krea가 자사 서비스에서 만든 영상 다섯 편을 X에 올렸다. 다운힐 스케이트, 서퍼가 파도를 타는 장면, 말들이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얼음 아래 심해, 오프로드 트레일까지 다섯 개 장면 모두 실사에 가까운 질감을 담고 있다는 게 Krea 측 설명이다. 회사는 "seedance 2.5 is incredible at realism"이라며 각 영상에 쓴 프롬프트를 한 장짜리 PDF 프롬프트팩으로 묶어 배포했다.

메탈랩은 그 프롬프트팩을 직접 내려받아 다섯 편 전문을 아래에 한국어로 옮겼다. 파일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이 기사에서 바로 골라 복사해 쓰면 된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Krea는 이 영상들을 직접 개발한 회사가 아니다. Krea는 여러 생성 모델을 한데 모아 웹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호스팅 플랫폼이고, 영상을 만들어낸 엔진인 Seedance 2.5는 ByteDance Seed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 생성 모델 계열이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를 짧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최근 몇 달 사이 실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로 화제를 모아왔다. 이번 Krea의 게시물은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서 이 모델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 공유에 가깝다.



데이터브릭스 CEO "AGI 이미 왔다"...밸류 1900억달러 확정

프롬프트 다섯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장면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피사체 하나, 움직임 하나,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 하나. 그 뒤에 화면 비율, 렌즈 느낌,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목록이 붙는다. 흥미로운 건 마지막 목록이다. 다섯 편 모두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을 똑같이 요구한다. 생성 모델이 기본값으로 얹어버리는 AI 영상 특유의 매끈함을 걷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섯 편 전문 한국어 번역

1. 다운힐 스케이트

동작 — 스케이터가 완전히 웅크린 턱 자세로 언덕을 폭주한다. 보드가 흔들리는 가운데 달리는 자동차 두 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두 팔을 벌려 균형을 잡는다. 촬영 차량이 뒤처졌다가 다시 따라붙는다. 교차로가 가까워지자 도로 폭을 가득 쓰며 급하게 카빙해 속도를 죽이고, 몸을 일으켜 빠져나간다.

오디오 — 휴대폰 마이크, 심하게 찌그러진 소리.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우레탄 바퀴의 굉음, 마이크를 때리는 바람, 촬영 차량의 엔진음, 차 안에서 터지는 고함과 웃음.

금지 — 포토리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

영어로 넣을 때 살려야 할 표현 — 10-second handheld phone video, one shot, no cuts, 16:9 · bombs the hill · full tuck · rolling-shutter wobble · autofocus hunting · on-phone mic, heavily overdriven

장면 — 낮, 먼바다. 무거운 회색 너울과 공중에 흩날리며 떠 있는 물보라.

카메라 — 파도가 부서지는 지대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손에 든 방수 하우징. 화면이 물 반 공기 반으로 갈리고, 돔 포트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수평선이 사납게 기울어진다.

동작 — 거대한 파도가 일어서며 카메라를 향해 곧장 부서지기 시작한다. 서퍼가 꼭대기에서 떨어져 들어와 파도면을 타고 달리고, 위쪽 립에서 물보라가 뿜어져 나간다. 파도는 카메라 위로 계속 커지다가 립이 앞으로 내던져지고, 결국 렌즈 위로 통째로 무너진다. 화면이 뿌옇게 소용돌이치는 물과 기포에 잠긴다.

2. 사막 랠리

동작 — 랠리 트럭이 모래 언덕 꼭대기에서 점프해 날아오른다. 공중에서 차체가 옆으로 돌며 착지하고, 뒤따르는 차량 두 대가 그 뒤를 이어 점프한다. 세 대가 나란히 사막을 가로지른다.

오디오 — 엔진 회전수가 높은 V8 엔진의 포효, 모래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 차체가 착지할 때 서스펜션이 눌리는 소리,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

금지 — 포토리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

영어로 넣을 때 살려야 할 표현 — 10-second handheld phone video, one shot, no cuts, 16:9 · bombs the hill · full tuck · rolling-shutter wobble · autofocus hunting · on-phone mic, heavily overdriven

장면 — 낮, 사막. 붉은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늘은 먼지로 뿌옇다.

카메라 — 랠리 트럭 조수석 창문 밖에 장착된 액션 카메라. 차체 옆면과 모래 언덕이 번갈아 화면을 채우고, 점프 순간 카메라가 잠시 하늘을 향한다.

동작 — 첫 번째 트럭이 언덕 꼭대기에서 점프해 날아오른다. 공중에서 차체가 옆으로 돌며 착지하고, 뒤따르는 두 대가 그 뒤를 이어 점프한다. 세 대가 나란히 사막을 가로지른다.

3. 얼음 아래 심해

동작 — 카메라가 얼음 표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천천히 떠오른다. 얼음 틈으로 들어오는 빛줄기가 점점 넓어지고, 그 빛 속을 작은 물고기 떼가 가로지른다.

오디오 — 물속 특유의 먹먹한 정적, 멀리서 들리는 얼음 갈라지는 소리,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

금지 — 포토리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

영어로 넣을 때 살려야 할 표현 — 10-second handheld phone video, one shot, no cuts, 16:9 · bombs the hill · full tuck · rolling-shutter wobble · autofocus hunting · on-phone mic, heavily overdriven

장면 — 낮, 얼음 아래. 두꺼운 얼음 천장과 그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하늘.

카메라 — 얼음 표면 바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 천천히 떠오른다. 얼음 틈으로 들어오는 빛줄기가 점점 넓어지고, 그 빛 속을 작은 물고기 떼가 가로지른다.

동작 — 카메라가 얼음 표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천천히 떠오른다. 얼음 틈으로 들어오는 빛줄기가 점점 넓어지고, 그 빛 속을 작은 물고기 떼가 가로지른다.

4. 오프로드 트레일

동작 — 오프로드 바이크가 바위와 진흙이 섞인 가파른 트레일을 올라간다. 앞바퀴가 들리며 큰 바위를 넘고, 착지하면서 뒷바퀴가 미끄러진다. 라이더가 균형을 잡으며 계속 올라간다.

오디오 — 엔진 회전수가 높은 2행정 엔진의 날카로운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타이어 소리, 라이더의 숨소리.

금지 — 포토리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

영어로 넣을 때 살려야 할 표현 — 10-second handheld phone video, one shot, no cuts, 16:9 · bombs the hill · full tuck · rolling-shutter wobble · autofocus hunting · on-phone mic, heavily overdriven

장면 — 낮, 숲속 트레일.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하고, 흙길 위에 젖은 낙엽이 깔려 있다.

카메라 — 라이더 헬멧에 장착된 액션 카메라. 앞바퀴와 진행 방향이 화면 하단을 채우고, 점프 순간 카메라가 잠시 하늘을 향한다.

동작 — 오프로드 바이크가 바위와 진흙이 섞인 가파른 트레일을 올라간다. 앞바퀴가 들리며 큰 바위를 넘고, 착지하면서 뒷바퀴가 미끄러진다. 라이더가 균형을 잡으며 계속 올라간다.

5. 다운힐 스케이트

동작 — 스케이터가 완전히 웅크린 턱 자세로 언덕을 폭주한다. 보드가 흔들리는 가운데 달리는 자동차 두 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두 팔을 벌려 균형을 잡는다. 촬영 차량이 뒤처졌다가 다시 따라붙는다. 교차로가 가까워지자 도로 폭을 가득 쓰며 급하게 카빙해 속도를 죽이고, 몸을 일으켜 빠져나간다.

오디오 — 휴대폰 마이크, 심하게 찌그러진 소리.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우레탄 바퀴의 굉음, 마이크를 때리는 바람, 촬영 차량의 엔진음, 차 안에서 터지는 고함과 웃음.

금지 — 포토리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

영어로 넣을 때 살려야 할 표현 — 10-second handheld phone video, one shot, no cuts, 16:9 · bombs the hill · full tuck · rolling-shutter wobble · autofocus hunting · on-phone mic, heavily overdriven

장면 — 낮, 먼바다. 무거운 회색 너울과 공중에 흩날리며 떠 있는 물보라.

카메라 — 파도가 부서지는 지대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손에 든 방수 하우징. 화면이 물 반 공기 반으로 갈리고, 돔 포트 위로 물이 흘러내리고, 수평선이 사납게 기울어진다.

동작 — 거대한 파도가 일어서며 카메라를 향해 곧장 부서지기 시작한다. 서퍼가 꼭대기에서 떨어져 들어와 파도면을 타고 달리고, 위쪽 립에서 물보라가 뿜어져 나간다. 파도는 카메라 위로 계속 커지다가 립이 앞으로 내던져지고, 결국 렌즈 위로 통째로 무너진다. 화면이 뿌옇게 소용돌이치는 물과 기포에 잠긴다.

메탈랩 한 줄 정리

Krea는 영상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 모델을 한데 모아 웹에서 돌리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번 게시물은 "우리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서 이 모델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례 공유에 가깝다. 다섯 편 모두 "CGI 느낌 없음, 슬로모션 없음, 음악 없음, 텍스트 없음, 로고 없음"을 똑같이 요구한다. 생성 모델이 기본값으로 얹어버리는 AI 영상 특유의 매끈함을 걷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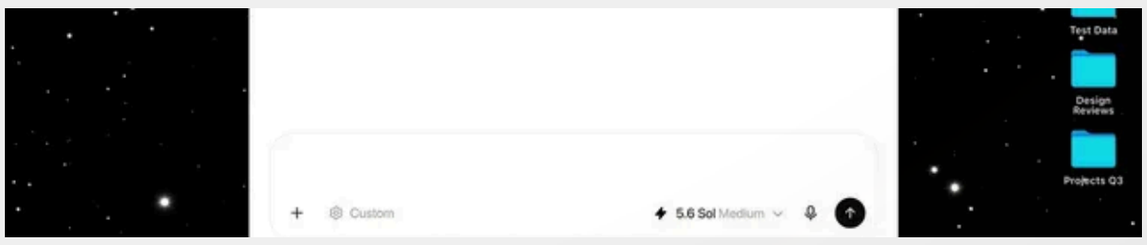
수노 스튜디오 2.0, MIDI 붙였지만 VST는 아직



수노가 자사 음악 편집 도구 Suno Studio의 새 버전 2.0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MIDI 지원이다. MIDI는 음의 높낮이와 길이, 세기 같은 연주 정보를 담아 악기 소리를 자유롭게 바꿔 끼울 수 있게 하는 표준 규격으로, 사실상 모든 현대적 음악 제작 프로그램(DAW·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수노는 MIDI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능이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Suno Studio는 AI가 뽑아낸 결과물을 다듬는 정도의 편집기에 가까웠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음 하나하나를 직접 그리고 고치는 작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아직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VST는 지원하지 않는다. VST는 음악 제작자들이 즐겨 쓰는 외부 가상 악기·이펙트 플러그인 표준으로,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평소 쓰던 신스나 이펙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대신 수노는 자체 내장 신스만 제공하는데, 이 신스는 두 개의 오실레이터로 소리를 만드는 웨이브테이블 방식에 엔벨로프(소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절하는 기능) 몇 개가 붙은 비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알려졌다. 유명 빈티지 신스 플러그인을 흉내 내려는 도구가 아니라, MIDI로 그린 멜로디를 최소한으로 다듬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로 봐야 한다.

챗GPT, 컴퓨터 사용 기록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추가



매번 챗GPT에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걸 줄이는 기능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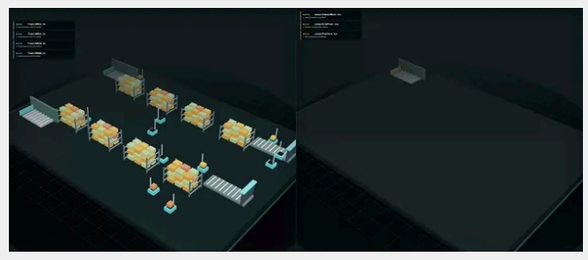
오픈AI가 8월 13일(현지시간) 데스크톱 앱에 '컴퓨터 히스토리(Computer History)'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챗GPT가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앱과 방문한 웹사이트의 활동을 기억해, 다음 대화에서 배경 설명을 다시 할 필요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오늘 지면

1 크리에이티브 Krea, 리얼리즘 영상 프롬프트 5종 무료 공개
2 수노 스튜디오 2.0, MIDI 붙였지만 VST는 아직
3 챗GPT, 컴퓨터 사용 기록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추가
4 오픈AI, GPT-5.6 Sol '초고속 모드' 예고...최대 14배 빠르게
5 줌 화면공유 기능, AI 프롬프트 20개 미만으로 뚫렸다
6 비즈니스 데이터브릭스 CEO "AGI 이미 왔다"...밸류 1900억달러 확정

이 지면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픈AI, GPT-5.6 Sol '초고속 모드' 예고...최대 14배 빠르게

오픈AI가 GPT-5.6 Sol의 'Ultrafast 모드'를 예고했다. 같은 모델이 최대 14배 빠른 속도로 답을 내놓는 버전으로, 오픈AI API를 통해 소수의 기업 고객에게 먼저 열린다. 오픈AI는 이후 처리 용량(capacity)이 늘어나는 대로 접근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챗GPT 앱이 아니라 API 채널로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대량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업용 에이전트 워크플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GP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수노 스튜디오 2.0, MIDI 붙였지만 VST는 아직



1 수노가 음악 편집 도구 Suno Studio의 2.0 버전을 내놓으며 MIDI 지원을 처음 추가했다

2 서드파티 플러그인·VST는 아직 지원하지 않아 자체 내장 신스로만 편집해야 한다

3 올여름 애플 앱스토어 음악 앱 1위를 지킨 수노가 신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흐름 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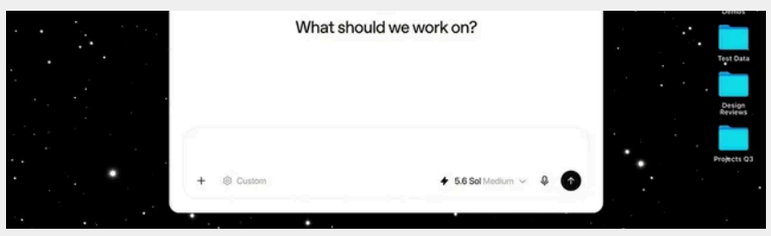
수노가 편집 기능을 강화하는 시점이 공교롭다. 수노는 올여름 애플 앱스토어 음악 앱 부문에서 여러 주간 1위를 지켰다고 블룸버그를 인용해 밝힌 바 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노래가 나오는 방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운로드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8월 6일에는 오디오 워터마킹과 핑거프린팅 기술 도입을 예고하고, 특정 아티스트 이름을 프롬프트로 쓰지 못하게 막는 등 무단 복제 방지 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기타 부품업체 D'Addario가 홍보 영상에 수노 음악을 몰래 썼다가 2주 만에 시인한 사건도 겹쳤다. 인기는 늘었지만 "AI가 뚝딱 만든 노래"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압박도 함께 커진 셈이다. Studio 2.0의 MIDI 지원은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프로듀서가 직접 손을 대는 제작 도구로 자리를 옮기려는 시도다.

원문에는 세부 진입 경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Suno Studio가 수노 플랫폼 내 편집 도구로 존재해온 만큼 2.0 업데이트도 같은 경로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기능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반주에서 특정 구간의 음정이 마음에 안 들 때, 예전에는 프롬프트를 바꿔 처음부터 다시 생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MIDI 노트를 직접 옮겨 고칠 수 있다. 다만 좋아하는 외부 신스나 이펙트 플러그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는 이용자라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 1면에서 계속

챗GPT, 컴퓨터 사용 기록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추가



1 오픈AI가 챗GPT 데스크톱 앱에 컴퓨터 활동을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기능을 추가했다

2 설정→통합 메뉴에서 옵트인해야 작동하며 타임라인 뷰와 전체 삭제 기능을 지원한다

3 Pro·Business·Enterprise 대상 전 세계 롤아웃을 시작했고 EEA·영국·스위스는 추후 지원한다

오픈AI에 따르면 컴퓨터 히스토리는 앞서 내놓은 연구 프리뷰 '크로니클(Chronicle)'을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토큰 사용량을 줄이고 프라이버시 제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 개선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타임라인 뷰에서는 지난 작업을 되돌아보고, 자주 반복하는 업무 패턴에서 요령을 뽑아 다음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록은 메뉴바나 앱 내 메뉴에서 한꺼번에 지울 수 있게 설계됐다.

오픈AI가 함께 공개한 예시 화면에는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담겨 있다. 데스크톱에는 'Roadmaps', 'Demos', 'Test Data', 'Design Reviews', 'Projects Q3' 폴더가 놓여 있고, 하단 독(Dock)에는 슬랙 알림 28개, 피그마 알림 15개가 쌓여 있다. 챗GPT는 이런 배경 활동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무엇을 도와줄지 먼저 묻는 식으로 작동한다. 화면 하단 모델 선택란에는 'GPT-5.6 Sol Medium'이라는 표기도 함께 노출됐다.

컴퓨터 히스토리는 기본값으로 켜져 있지 않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옵트인 방식이다.

◀ 1면에서 계속

오픈AI, GPT-5.6 Sol '초고속 모드' 예고…최대 14배 빠르게



1 오픈AI가 GPT-5.6 Sol의 'Ultrafast 모드'를 예고하며 최대 14배 빠른 응답 속도를 언급했다

2 오픈AI API를 통해 소수의 선별 고객에게 먼저 열리고,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대로 접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 공개된 데모 이미지는 같은 물류창고 배치도(FC Plan 18B)를 Standard·Ultrafast 두 버전으로 나란히 보여줬다

오픈AI가 함께 공개한 이미지 두 장은 같은 물류창고 시설 배치도(FC Plan 18B)를 각각 'GPT-5.6 Sol Standard'와 'GPT-5.6 Sol Ultrafast'로 표시했다. 두 도면은 면적 1,536제곱미터, 보관구역 12곳, 스테이션 4곳 등 수치가 완전히 동일하다. 처리 속도만 다를 뿐 결과물 품질은 그대로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도면에는 "이 레거시 뷰는 물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병목을 테스트하거나 운영 정책을 비교할 수 없다"는 안내문도 함께 담겼는데, 정적인 기존 계획 도구의 한계를 짚은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Ultrafast 모드는 챗GPT가 아니라 오픈AI API로만 제공된다. 오픈AI는 이번 예고에서 소수의 선별된 고객에게 먼저 접근권을 준다고 밝혔고, 처리 용량이 늘어나는 데 따라 더 많은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사용자가 앱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며, 대규모 API 호출이 필요한 기업 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같은 답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는 에이전트형 서비스에서는 품질만큼 중요한 변수다. 창고 배치처럼 여러 시나리오를 반복 계산해야 하는 업무나,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고객센터 자동화에서는 14배의 속도 차이가 실질적인 처리량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개는 API 우선 접근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용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3.7 플래시 포착이나 xAI 그록 봇 출시처럼 경쟁사들도 속도와 반응성을 앞세우고 있어, 오픈AI의 이번 예고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 카드로 볼 수 있다.

줌 화면공유 기능, AI 프롬프트 20개 미만으로 뚫렸다

주석 기능 악용해 카메라·마이크 원격 조작 가능한 취약점, 보안사 A Security가 발견해 패치



1 줌(Zoom)이 회의 중 상대 기기를 장악할 수 있는 취약점을 패치했다

2 보안사 A Security는 공개 AI 모델에 20개 미만의 프롬프트만 입력해 결함을 찾아냈다

3 화면 공유 시 그림을 그리는 '주석' 기능을 악용해 악성코드 실행이 가능했다

줌(Zoom)에서 회의에 참여한 것만으로 상대의 노트북 카메라와 마이크가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공격자가 특별한 해킹 기술 없이 회의를 열거나 참여하기만 해도, 피해자의 기기에서 악성코드를 실행해 데이터를 훔치거나 카메라·마이크를 몰래 켜고 추가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는 구조였다. 화상회의 도구가 업무의 기본값이 된 지금, 회의창을 여는 행위 자체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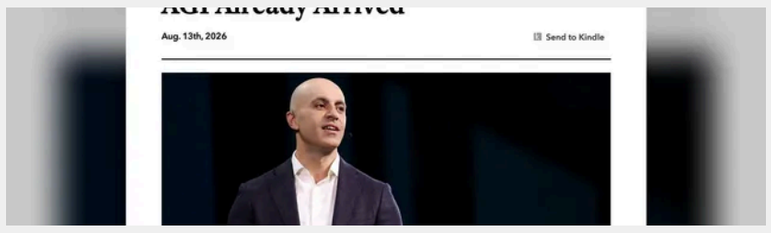
문제의 통로는 줌의 '주석(annotation)' 기능이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상대 화면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흔히 쓰는 협업 도구다. 보안 연구팀 A Security는 이 기능의 처리 방식에서 결함을 찾아내 공격자가 별도 조작 없이도 상대 기기의 명령 실행 권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화면 공유는 이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기능이라, 그 신뢰 관계 자체가 뚫린 구조였다.

이번 발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방법이다. A Security는 지난 화요일 블로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 모델에 20개 미만의 프롬프트만 입력해" 이 결함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취약점 하나를 찾는 데 몇 주씩 코드를 뜯어보던 전통적 방식과 비교하면, 대화형 질문 몇 번으로 취약점 위치를 짚어냈다는 이야기다. 이 소식은 와이어드(Wired)가 먼저 보도했고, 더버지(The Verge)가 이를 다시 전했다.

비즈니스

데이터브릭스 CEO "AGI 이미 왔다"…밸류 1900억달러 확정

고드시 CEO가 AGI 도래를 선언한 날, 회사는 50억달러 투자를 마감하며 기업가치 1900억달러를 인정받았다



1 데이터브릭스 CEO 앨리 고드시가 포브스 인터뷰에서 AGI가 이미 도래했으며 부족한 것은 기업 맥락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2 같은 날 회사는 5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 유치를 마감해 기업가치 1900억달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3 새 자금은 Genie, Lakebase, Unity AI Gateway 세 제품에 투입된다고 회사가 밝혔다

같은 날 두 장의 카드가 동시에 나왔다. 하나는 데이터브릭스 CEO 앨리 고드시의 발언, 다른 하나는 회사의 자금 마감 소식이다. 포브스 기자 빅터 데이가 전한 인터뷰에서 고드시는 "AGI는 이미 왔다"고 말했다고 데이터브릭스 공식 계정이 인용했다. 다만 그가 말한 AGI는 흔히 상상하는 초지능이 아니다. 그의 논지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 모델의 추론 능력은 이미 충분한데, 그 능력이 쓸 부(fortune)는 기업의 맥락 데이터 안에 묻혀 있고 지금 모델들은 그 맥락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발언이 나온 같은 시각, 회사는 50억달러 규모의 신규 전략 투자 유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로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1900억달러다. 데이터브릭스는 이 자금이 Genie, Lakebase, Unity AI Gateway 세 제품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세 제품은 각각 자연어 질의 도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AI 모델 트래픽 관리 게이트웨이로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 모두 모델이 기업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도록 돕는 인프라라는 점이다. 고드시의 주장과 자금 용처가 정확히 겹치는 셈이다.

데이터브릭스는 지난 8월 13일 별도로 2분기 매출이 연환산 70억달러를 넘겼고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형 서비스 Lakehouse는 연환산 15억달러, 신규 서비스 Lakebase는 1억달러를 넘겼다. 회사의 성장 축이 단순 저장·처리를 넘어 AI 모델과 기업 데이터를 잇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8월 4일에는 Unity AI Gateway를 정식 출시했는데, 이 제품은 에이전트 레지스트리, 접근 제어, 예산 정책, 스마트 라우팅 등 6개 기능으로 구성돼 모델이 어떤 맥락에 얼마나 접근할지를 통제한다. 고드시가 말한 "모델이 갖지 못한 맥락"을 실제로 채워 넣는 제품들이 이미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나온 어려운 말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GPT-5.6 루나
GPT-5.6 Luna
오픈AI가 챗GPT 무료·Go 요금제 사용자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AI 모델.

VST 플러그인
VST (Virtual Studio Technology)
음악 제작 프로그램에 끼워 쓰는 가상 악기·이펙트 표준 규격

레이크베이스
Lakebase
데이터브릭스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AI 에이전트의 작업 대기·재시도·일정 관리를 하나로 묶어 처리한다.

유니티 AI 게이트웨이
Unity AI Gateway
AI 모델이 기업 내부 데이터에 얼마나, 어떻게 접근할지 통제하는 데이터브릭스의 관리 제품

오늘 해볼 것

오늘 지면에 나온 것 중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2가지

1 공급망 공격

Supply Chain Attack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나 개발 도구 하나를 오염시켜, 그것을 쓰는 모든 조직에 피해를 한꺼번에 퍼뜨리는 공격 방식

이게 뭔데

공급망 공격은 물건을 직접 훔치는 대신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나 유통 창고에 몰래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공격이다. 정수장 하나에 독을 타면 그 물을 받는 모든 집이 동시에 피해를 입듯, 많은 개발자가 가져다 쓰는 도구나 부품 코드 하나에 악성코드를 심으면 그 도구를 내려받은 조직 전체가 한꺼번에 뚫린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취약점을 검사해주는 도구 Trivy가 먼저 감염됐고, 그 감염이 여러 AI 모델을 한번에 연결해주는 도구 LiteLLM으로 옮겨붙었다. 이 손상된 버전을 내려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등 2,500여개 조직에서 40분 사이 접속키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갔다. 공격자는 조직 하나하나를 노린 게 아니라, 그 조직들이 공통으로 신뢰하고 쓰는 도구 하나만 손댔을 뿐이다.

그래서 공급망 공격은 회사가 아무리 자체 보안을 철저히 해도 막기 어렵다. 문제가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가져다 쓴 외부 부품 안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도구를 어디서 받아 쓰는지 출처를 점검하는 일이 보안의 기본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해 보려면

자신이 쓰는 개발 도구나 라이브러리의 안전성이 궁금하다면 AI 챗봇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내가 쓰는 오픈소스 패키지 이름을 알려줄 테니, 최근에 공급망 공격이나 악성코드 삽입 이력이 보고된 적이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이런 도구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알려줘."

답변이 나오면 실제 공식 보안 공지를 검색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오늘 지면에서 — 줌 화면공유 기능, AI 프롬프트 20개 미만으로 뚫렸다

2 컴퓨터 히스토리

Computer History

챗GPT 데스크톱 앱이 사용자의 컴퓨터 활동을 기억해 이전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이게 뭔데

컴퓨터 히스토리는 챗GPT 데스크톱 앱이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켜두고 어떤 웹사이트를 봤는지 기억해두는 기능이다. 회사 비서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와 쌓여 있는 메신저 알림을 눈여겨봐두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든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 사용자가 직접 켜야만 작동한다. 켜두면 작업한 내용이 시간순으로 정리된 목록으로 쌓이고, 반복되는 작업 패턴에서 요령을 뽑아 다음 작업을 제안받을 수도 있다. 원치 않으면 언제든 기록을 통째로 지울 수 있다. 활동을 지켜본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어디까지 기록되는지가 신경 쓰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해 보려면

1. 챗GPT 데스크톱 앱을 열고 설정에서 컴퓨터 히스토리 기능을 켠다.
2. 평소처럼 여러 앱과 웹사이트를 오가며 작업한다.
3. 다음 대화에서 챗GPT에게 "아까 하던 작업 이어서 해줘"라고 물어본다.
4. 타임라인 뷰를 열어 그동안의 작업 흐름을 시간순으로 확인한다.
5.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으면 메뉴에서 전체 삭제를 선택해 히스토리를 비운다.

오늘 지면에서 — 챗GPT, 컴퓨터 사용 기록 기억하는 '컴퓨터 히스토리' 추가

오늘 나온 말, 조금 더

풀이 전문은 metallab.ai/glossary

GPT-5.6 루나

GPT-5.6 Luna

GPT-5.6 루나는 오픈AI가 만든 AI 모델 가운데 돈을 내지 않는 사용자에게 기본값으로 배정되는 버전이다. 식당에 비유하면, 유료 회원에게는 더 정교하게 손질된 코스 요리(GPT-5.6 솔)가 나가고, 무료 손님에게는 같은 주방에서 나오는 기본 메뉴가 나가는 셈인데 그 기본 메뉴가 루나다.

루나는 최근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답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질문을 읽어들이는 데 드는 비용이 각각 80% 내려갔는데, 이는 중국에서 나온 값싼 경쟁 모델들이 성능 격차를 좁히면서 오픈AI가 값을 낮춰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료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이 직접 와닿지 않지만, 이 모델을 API로 가져다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청구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다.

VST 플러그인

VST (Virtual Studio Technology)

VST 플러그인은 음악 제작 프로그램에 끼워서 쓰는 가상 악기와 소리 효과 장치를 통틀어 부르는 표준 규격이다. 콘센트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어느 회사가 만든 전자제품이든 그 콘센트에 꽂아 쓸 수 있듯, VST 규격에 맞춰 만든 프로그램이면 어느 회사 것이든 음악 편집 프로그램(DAW)에 꽂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에 공간감 있는 울림을 넣고 싶으면 리버브 VST를 하나 꽂고, 특정 회사가 만든 신시사이저 음색을 쓰고 싶으면 그 회사의 VST 악기를 꽂는다. 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이 규격에 맞춰 플러그인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제작자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회사의 도구를 자유롭게 섞어 쓸 수 있다.

최근에는 텍스트만 입력하면 노래를 만들어주는 AI 음악 서비스들이 자체 편집 도구를 내놓으면서 VST 지원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드파티 VST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평소 쓰던 신스나 이펙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장 도구만 써야 하는 제약이 생긴다.

레이크베이스

Lakebase

레이크베이스는 데이터브릭스가 내놓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다. 데이터베이스란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창고 같은 것인데, 레이크베이스는 이 창고 안에 스스로 여러 단계 작업을 처리하는 AI 프로그램이 일하는 데 필요한 관리 기능까지 함께 넣어놓은 제품이다.

이런 AI 프로그램은 일을 진행하면서 '다음에 뭘 할지 줄 세우기',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기',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기' 같은 잡무가 계속 생긴다. 보통은 이런 잡무마다 별도 도구를 따로 두는데, 레이크베이스는 이걸 창고 하나에 다 몰아넣어서 여러 도구를 따로 관리할 필요를 줄인 것이다.

데이터브릭스는 이 제품을 정식 출시한 지 얼마 안 돼 매출 연환산 1억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회사 CEO가 'AGI는 이미 왔다'고 말하며 강조한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 모델의 능력은 이미 충분한데, 그 능력이 회사 내부 데이터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레이크베이스 같은 제품이 그 연결 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유니티 AI 게이트웨이

Unity AI Gateway

유니티 AI 게이트웨이는 회사 안에서 여러 AI 모델이 오가는 길목을 지키는 관문 같은 제품이다. 큰 회사 로비에 있는 출입 데스크를 떠올리면 된다. 데스크 직원은 누가 몇 층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 수 있는지, 어느 통로로 안내할지를 결정한다. 유니티 AI 게이트웨이도 똑같은 일을 한다. 다만 사람 대신 AI 모델이, 건물 대신 회사의 데이터가 대상이다.

회사에는 여러 AI 모델이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무 모델이나 아무 데이터에나 접근하게 두면 위험하고, 비용도 통제하기 어렵다. 이 제품은 어떤 AI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는지 관리하고, 접근 권한을 나누고,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정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결국 AI 모델의 능력 자체보다, 그 능력이 회사 데이터라는 자원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닿게 만드는 관리 도구인 셈이다.

핑거프린팅

Fingerprinting

핑거프린팅은 콘텐츠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뽑아내, 나중에 그 콘텐츠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기술이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AI가 만든 노래나 이미지에도 미세한 패턴이 남는데, 이 패턴을 분석하면 나중에 다른 곳에 퍼진 사본을 원본과 연결지을 수 있다.

비유하자면 짧은 음악 클립만 듣고 원곡을 찾아주는 노래 검색 앱과 비슷하다. 그런 앱은 소리의 파형에서 특징적인 패턴을 뽑아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곡을 찾아낸다. 핑거프린팅도 같은 원리로, 콘텐츠 자체의 특징을 뽑아 비교하기 때문에 파일이 압축되거나 일부 편집돼도 흔적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워터마킹과는 성격이 다르다. 워터마킹은 콘텐츠를 만들 때 눈에 안 보이는 표시를 일부러 심어 넣는 방식이고, 핑거프린팅은 콘텐츠 안에 원래부터 있던 고유 신호를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두 기술은 자주 함께 쓰이며, 음악·영상 유통 플랫폼이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걸러내는 데 활용된다.

오디오 워터마킹

Audio Watermarking

오디오 워터마킹은 지폐에 숨겨진 무늬와 비슷하다. 지폐를 빛에 비추면 평소엔 안 보이던 그림이 드러나듯, AI가 만든 음악 파일 속에도 평소 듣기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표시를 심어 놓는 것이다. 이 표시는 노래를 어디에 올리고 어떻게 잘라 붙이든 잘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이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은 SNS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사람이 부른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귀로만 구분하기 어렵다. 표시를 심어 두면 나중에 이 곡이 다른 곳에 퍼졌을 때 특정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표시는 그 노래가 예술적으로 훌륭한지, 사람 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판단해주지는 않는다. 그저 만든 곳을 알려주는 꼬리표에 가깝다.

비슷한 목적의 기술로 원곡의 고유한 소리 패턴을 뽑아 지문처럼 비교하는 방식도 함께 쓰이는데, 이는 표시를 심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특징을 찾아내는 방식이라 워터마킹과는 원리가 다르다.

시드앤스 2.5

Seedance 2.5

시드앤스 2.5는 글이나 사진 한 장을 넣으면 짧은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치 그림 설명을 들려주면 그 장면을 실제로 촬영한 것처럼 재현해주는 화가를 컴퓨터 안에 둔 것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결과물이 실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모델을 직접 만든 곳과, 이 모델을 웹에서 써볼 수 있게 빌려주는 곳은 다르다. 이 모델은 ByteDance Seed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Krea나 Runway 같은 서비스들은 이 모델을 자기 플랫폼에 가져다 붙여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쪽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만든 레시피(모델)를 여러 식당(플랫폼)이 각자의 주방에서 손님에게 내놓는 셈이다.

Ultrafast 모드

Ultrafast Mode

Ultrafast 모드는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똑같은 답을 훨씬 빠르게 내놓도록 만든 속도 전용 옵션이다. 배달 음식으로 비유하면, 같은 레시피로 같은 맛을 내되 주방 동선과 인원 배치를 바꿔서 상을 훨씬 빨리 차려내는 것과 비슷하다. 요리 내용, 즉 답변의 품질은 그대로 두고 서빙 속도만 끌어올리는 셈이다.

오픈AI는 GPT-5.6 Sol이라는 모델에 이 옵션을 적용해 최대 14배 빠른 응답을 예고했다. 실제로 공개한 비교 이미지를 보면 일반판과 Ultrafast판이 만든 결과물은 면적, 구역 수 같은 세부 수치까지 완전히 똑같았다. 다만 이 옵션은 일반 채팅 앱이 아니라 기업들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통로로만 먼저 열렸는데, 짧은 시간에 수많은 요청을 반복 처리해야 하는 자동화 업무에서 속도 차이가 특히 크게 체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석 기능

Annotation

주석 기능은 화상회의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상대방 화면 위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화살표 같은 표시를 그려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발표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하듯, 화면 위에 직접 표시를 얹어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내가 그린 그림이 상대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오가는 통로가 새로 생기는데, 이 통로를 제대로 잠그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는 척하면서 다른 명령을 몰래 끼워 넣을 여지가 생긴다. 화면에 낙서 한 줄 남기는 단순한 동작이, 설계상 결함이 있으면 상대 컴퓨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크로니클

Chronicle

크로니클은 오픈AI가 먼저 내놓았던 실험적인 기능이다. 챗GPT가 사용자의 컴퓨터 활동을 기억하도록 시험해본 초기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말하자면 정식 출시 전에 먼저 풀어본 시범판 같은 것이다. 이 시범판에서 얻은 반응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픈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더한 개선판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컴퓨터 히스토리다. 즉 크로니클은 실험이었고, 컴퓨터 히스토리는 그 실험의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크로니클이라는 이름을 기사에서 봤다면, 그것 자체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그게 발전해서 지금 이 기능이 나왔다'는 맥락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